

# 한국과 남인도(타밀문명)와의 교류

## 목 차

1. 서언
2. 한국어와 타밀어의 교류
3. 두 언어의 어휘 비교
4. 두 언어의 문법 비교
5. 결어

1. 서언

## 1) 타밀어를 연구하게 된 계기:

'철기문명의 이동, 벼농사, 고인돌, 옹관묘, 타밀어' 등이 한국과 관련된 고대 해상실크로드 문명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었다. 이 주제 중에서 타밀어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한국문명교류연구소(KICE)에서 2012년부터 타밀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연구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타밀어를 문명교류적 관점에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한국어와 타밀어 사이에 어떻게 많은 유사성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우리는 한국어(한국말)와 타밀어(타밀말)의 풍부한 교류가 BC 2세기부터 AC 2세기 사이의 철기문명의 이동시기에 발생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문명교류적 관점에서 타밀어를 연구하기 때문에 언어의 기원, 언어의 동계설 등과는 좀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은 언어학이나 고고학 등의 학제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주제들이다. 우리는 문명교류 그 사실 자체를 깊이 연구한다.

## 기존의 연구 개관

1905년에 최초로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박사가 '한국어와 드라비다어의 비교연구'<sup>1</sup>를 출판했다. 헐버트 박사는 칼드웰 박사(Robert Caldwell)의 남인도 언어에 대한 비교연구<sup>2</sup>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드라비다어의 문법과 어휘를 비교하였다.

1984년에 클리핑거(Morgna E. Clippinger)교수는 두 언어의 공통 또는 유사 어휘 408개를 바탕으로

---

<sup>1</sup> A comparative grammar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Dravidian language of India. 이 책은 1998년에 경남대학교 김정우 교수에 의해서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sup>2</sup> A comparative grammar of the Dravidian or South-Indian family of languages(Madras: University of Madras, 1875)

로 한국어와 타밀어를 비교연구<sup>3</sup>하였다. 클리핑거교수는 몇몇 고대 어휘를 제외하면 주로 중세시대 한국어 어휘자료를 기반으로 연구하였다.

한국 학자로는 강길운 교수와 김정남 박사가 타밀어 연구의 선구자다. 강길운 교수는 그의 연구<sup>4</sup>에서 한국어와 드라비다어 사이에 약 1,800여 어휘가 대응된다고 밝히고 있다. 캐나다의 김정남 박사<sup>5</sup>는 한국어와 타밀어의 대응어휘를 500여 개나 찾아냈다.

## 2. 한국어와 타밀어의 교류

### 1) 철기문명의 전래와 교류

BC 2세기경부터 AC 2세기경까지 타밀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국어와 교류를 했는지 규명하는 일은 쉽지도 않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한국은 북방 육로를 통해서 철기문명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본다.

하지만 타밀어는 남방 해로를 통해서 우리말과 교류했을 가능성이 크다. 먼저 당시 타밀문명은 현재 인도대륙의 중남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타밀어의 남방해로교류설을 주장할 수 있다. 당시 인도 북부는 대체로 산스크리트어와 힌디어 문명이 점유하고 있었다. 타밀문명을 보유한 타밀인들이 쉬운 해로를 놔두고 어려운 육로를 통해서 우리와 교류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둘째로는 유사이래로 나타난 전지구적 문명교류 중에서 해로를 통한 교류적 사실이 많이 있다는 점이다. 1세기 허황옥의 여행과 에리트리아 안내기, 6세기 달마대사의 선불교 전파, 5-8 세기 천축국 구법승들 다수의 해로노정, 14세기 '중국으로 가는 길'에 나온 서양 선교사들의 해로를 통한 종교 전파 등이 대표적인 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남아서 사용되고 있는 타밀어지역의 분포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 중남부 지역, 스리랑카 북부, 싱가포르

---

<sup>3</sup> Korean and Dravidian: Lexical Evidence for an old theory, Korean studies, 8(1984)

<sup>4</sup> 고대사의 비교언어학적 연구, 2011, 강길운, 한국문화사

<sup>5</sup> 캐나다에서 '한국타밀연구회'를 이끌며 한국어와 타밀어 사이의 관계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있다.

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타밀어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모두 해로를 통한 문명교류의 산물이다.

## 2) 우리와 타밀과의 교류

### (1) '가야'의 의미와 쌍어문

기원후 1세기 중후반에 성립된 '가야(연맹체)'는 한자로는 여러 가지로 음역된다. '가야'와 비슷한 타밀어가 '가얄கயல்'이다. '가얄கயல்'은 한 종류의 물고기를 이르는 말이다. 가야는 '쌍어문'과 관련 짓지 않을 수 없다. 타밀어 '가얄'과 가야의 '쌍어문'이 잘 연결된다.

### (2) 1세기 허황옥과의 교류

타밀과 한국의 최초의 교류를 남아 있는 기록에 근거해서 추정해 보면 AC 1세기 중반이다. 한국 고대 역사서인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허황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가락국기의 기록에 따르면 허황옥은 AC 48년에 아유타국(阿踰陁國)에서 와서 김수로왕의 왕비가 된다.

AC 1세기에 허황옥의 이런 긴 항행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행기가 있는데, 그것이 '에리트리아 안내기(Periplus of the Erythraean)'다. 이 여행기는 한 이집트 상인이 AC 57년경에 홍해부터 아랍을 지나,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에 이르기까지 상업활동을 한 내용을 적은 책이다. 허황옥의 여행시기와 비슷한 시기의 기록이다.

### (3) 이두와 향가, 그리고 상감문학

아직까지 '이두吏頭/idu/ 혹은 이두吏讀/idu/'의 정확한 뜻이나 기원을 모른다. 기존에 한자로 표기된 것을 해석하거나 유추할 뿐이다.

'이두吏頭/idu/ 혹은 이두吏讀/idu/'는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말을 표기하던 방식이다. 어순은 우리말 어법에 따르되 어미, 조사, 부사 등은 한자의 훈과 음을 빌어서 표기하는 방식이다. '이-두 또는 이두'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전이 읽는 것'이다.

'이:두/i:du/' 라는 낱말을 한자로 표기하는 방식은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다. 이로써 '이:두'라는 우리말이 기존에 있어서 이에 맞는 한자를 찾아서 조합한 것이 아닌가 추정<sup>6</sup>해 본다.

타밀어 '이-두 ஈடு /i:du/'는 '보상, 보석금, 등가물'등의 의미로 쓰인다. '이-ஈ/i:'라는 낱말은 '주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이-두'의 의미에도 이 '주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타밀어에는 '이두 இடு/idu/'라는 말도 있다. 이 말 역시 '주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두를 사용해 지어진 향가 25 수가 있다. 이 향가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석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강길운 교수는 그의 저서<sup>7</sup>에서 '타밀어를 원용하여 해석하여야 해석되는 구절이 있어서'라고 밝히고 있다.

고대 타밀문학에는 '상감문학'시기가 있다. 학자마다 시기구분이 조금씩 다르다. 대체로 BC 300년부터 AC 300년까지의 시기를 일컫는다. 이 시기는 철기문명의 이동의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 상감문학작품으로 2381 수의 시가 남아 있다. 이 시와 우리 향가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의 만요수와 타밀상감 문학의 관련성이 일찍이 논의된 적도 있다.

#### (4) 6세기 달마대사의 교류

5-6세기 남인도에서의 불교탄압으로 일명 '타밀불교 디아스포라(diaspora)'가 생겼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달마대사다. 달마대사는 예전 팔라바왕국의 수도였던 향지국, 그러니까 현재의 칸지푸람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달마대사는 6세기에 타밀나두를 떠나 중국까지 여행한다. 이 여행의 노정에서 양무제와 만나 눈을 유명한 선문답이 벽암록에 전해진다.

중국과 함께 우리도 달마대사의 선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다. 이 때 타밀나두 출신이었던 달마대사의 설법이 다수 타밀어로 이루어졌다면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sup>8</sup>.

---

<sup>6</sup> 강길운은 그의 저서 '향가신해독연구, 2004'라는 책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Ibid. p.8-9).

<sup>7</sup> Ibid.

<sup>8</sup> 신라 승려 중에 '무루無樓'라는 승려가 있다. 이 승려의 법명을 '최고의 경지에 오른 승'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타밀어로 '무루மூ'는 '완숙한, 절대적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

### 3) 언어의 공통적 일반 특징들

두 언어 사이에 공통적 특징이 많다. 그러나 일단 7 가지로 간추려 이야기 하려고 한다.

(1) 두 언어의 어순이 '주어 - 목적어 - 서술어(SOV)'다.

한국어(Korean): 나는 소를 좋아한다.

(S O V)

(S-TC O-AC like-do-IN-DC).

타밀어(Tamil) : நான் பசுவை விரும்புகிறேன்.

(S O V)

(S O-AC like-PNG).

(2) 교착어(Agglutinative language)

두 언어는 모두 접사와 조사가 있는 교착어다. 두 언어 모두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고, 격 조사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주격조사

	한국어(Korean)	타밀어(Tamil)
조사(affix)	은/는, 이/가	없음.

승려의 범명이 타밀어에 기반해서 지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승가僧伽'는 산스크리트어 '상가 아라마 (saṃgha-ārama)'가 한역되면서 '승가람마'로 음역되었고, 이것이 줄어서 '승가(중 승僧, 절 가伽)'가 되었다고 나온다.

고대 (순수?)타밀어에 '상-감 சாங்கம், 상감 சங்கம்'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협회, 사회, 모든 구성원'을 나타낸다. 산스크리트어 '상가(Samgha)'와 뜻이 같다.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수행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가리켜 '상가 또는 상-감'이라고 했던 것이다.

'상가 또는 상-감'의 기원이 산스크리트어에 있는지 아니면 타밀어에 있는지는 고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분명 불교용어 '상가 또는 상-감'이라는 낱말은 타밀어, 산스크리트어, 중국어, 한국어에서 교류되고 공유되고 있다.

② 목적격조사

	한국어(Korean)	타밀어(Tamil)
조사(affix)	을/를	아이ஐ(와이வை, 야이யை)

③ 처소격조사

	한국어(Korean)	타밀어(Tamil)
조사(affix)	에/에게, 에서	ஏக்கு, இல், இரந்து

- (3) 한국어와 타밀어는 체계적인 존칭어를 가지고 있다. 두 언어 모두 주어와 서술어에 존경의 의미를 담은 접사를 붙인다.

존경어미(honorific affix)

	주어	서술어
한국어(Korean)	-께서, -님	-시-, -십-
타밀어(Tamil)	-கள்	-கள்

- (4) 두 언어는 맥락 의존형(상황 의존형) 언어다. 한국어와 타밀어는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할 수 있다.

- (5) 두 언어는 조어법이 같은 언어다. 기본적인 조어 방법이 '자음 + 모음' 구조이다.

	자음	모음	완성
한국어(Korean)	ㄱ	ㅏ	가
타밀어(Tamil)	க்	அ	க

- (6) 두 언어는 단모음과 장모음이 있다. 타밀어어는 이 장모음과 단모음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어는 말하기에서만 드러난다.

(7) 두 언어의 어순이 자유롭다는 성격도 공유한다. 일상생활의 대화에서 화자의 의도나 습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순을 바꾸어 말해도 그 전체 의미맥락이 바뀌지 않는다.

### 3. 두 언어의 어휘비교

지금까지 기초적 연구를 바탕으로 보자면 두 언어의 공통 어휘에서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 첫째, 대체로 자모음과 품사 대응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하나의 핵심어근(어간)과 그 파생어휘의 관계도 유사한 경우가 다수 있다. 이는 두 언어가 단순히 표면적 교류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교류를 했다는 사실의 증거가 된다. 셋째, 일부 고대 고조선어휘나 삼국시대 어휘의 대응도 다수 있다. 이로 보아 두 언어는 고대의 특정시기에 매우 폭넓고 깊게 교류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어휘 대응자료 일부만을 살펴보도록 한다. 차후에 좀 더 완전한 어휘대응이 실행해보면 더 정확한 분석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1) 자연환경어 비교

한국어(Korean)	타밀어(Tamil)	영어(English)
보름/purum/	புரும்/parum/	Fullness
마루/maru/ 뫼/moi/ 말랭이/malrangi/	மரு/maru/ மேடு/me-du/ மலை/malai/	Top / mount / mountain or hill
비/pi/	பெய்/pei/	Rain
물/mul/	மழை/marai/	Water
밭/pat/	வயல்/vayal/ பரப்பு/parappu/	Cultivated field without water
곶/kot/ 코지/koji/	கோடி/ko-di/	Gulf, bay
뫼/mut/	முட்டு/muttu/	Hillock, a rising ground, Joint
굴/kul/	குழி/kuri/	Cave, hollow
가/ka/	கரை/karai/	Edge, border



2) 신체어 비교

한국어(Korean)	타밀어(Tamil)	영어(English)
대가리/tegari/	தலை/talai/	Head
코/ko/	மூக்கு/muk-ku/	Nose
궁둥이/kungdungi/	குண்டி /kundi/	Heap, buttocks
마디/madi/	மடி/madi/	Joint, lap
맘/mam/	மனம்/manam/	Heart
무릎/murup/	முழங்கால்/muranggal-/ முட்டி/mutti/	Knee
이빨/ipal/	பல்/pal/	Teeth
아가리/agari/	அகழ்/agari/	Mouth
가랑/karang/	கால்/kal-/	Leg

3) 가족관계어

한국어(Korean)	타밀어(Tamil)	영어(English)
아빠/appa/	அப்பா/appa/	Father
엄마/emma/	அம்மா/amma/	Mother
아내/amae/	அன்னை/annai/	Wife
언니/enni/	அன்னை/annai/	Elder sister or brother
마님/manim/	மனைவி/manaivi/	(house) wife

4) 기타 일상어

(1) 동사(verb)

한국어(Korean)	타밀어(Tamil)	영어(English)
가르-	கலை	Teach
달-	தரம்	(Weigh), rate, grade
부르-	விளி	call
싸우-	சண்டை	Fight
돋-	தோற்றம்	Sprout, coming up
도드-	தோற்றம்	Feature
무르-	முற்று	Grow ripen, absolute
무른-	முழு	ripen
너-	நுலை	Put into, logon

싸-	சாணி	Cow-dung
마려-	மலம	Shit, Excretion of the body
뚜렷-	துறை	Department, branch
뿜-	துறை	Any passage into
발-	வழங்கு	Speak
드러내-	திற	Open, reveal
그리-	குறி	Draw, aim
몹-	முட்டு	Dash against
묻-	முடு	Cover, shut
나-	நாற்றம்	Smell
피-	பிற	Be born
드리-	தாழவிட, துளி	Rain-drop
쏟-, 떨-	சொட்டு	Fall in drops, drizzle
맞추-	மட்டம்	Measure, conjecture
삼-	சமை	Make
안-	அணை	Accompaniment, embarkment
꼳-	கொக்கு	Crane, stork
우리-	உறிஞ்சு	Sip, suck up
비틀-	பிதுக்கு	Squeeze
캐-	கடை	Excavate
돌-	தொலை	Going around
돌-	தொல்லை	Puzzled
반갑-	வணக்கம்	Hello
싫-	சீறு, சீற்றம்	Hate, being angry
알-	அறிவு	Know, understand
가두-	கட்டு	Bandage
달-	தடை	Obstacle, bar
자라-	தழை	Sprout, spray
갈-	கலப்பை	Plough
나타나-	நடத்தை	Influence
늘어난-	நீளி	Grow long
늘어나-	நீளு	Lengthen
(기)다리-	தரி	Stop, remain
(정신) 팔-	பரி	Affection
줄어들-	சுருக்கு	Contraction
담-	தட்டு	Shelf, deck

따르-	தூர்த்து	Chase
(내)비두-	விடு	Let
말-	மறி	Forbid
마-	மறு	Ban
칼칼-	காழ்	Be pungent
발(광)-	வாள்	Lustre, light
와	வா	Come

(2) 명사(noun)

승가	சாங்கம்	Community
굴	குழி	Cave
칼	கத்தி	Knife
이-두	ஈடு	Equivalent
저야	சுய	Self
말랑	மெல்லு	Soft
구라	குரல்	Voice, vocative
벨	வேர்	Root
발-	வாள்	Shield
우람	உரவு, உரம்	Chest, strength
왈	வல்	Strong
수많-	சுமந்த	Numerous
꼴랑	குள்ளம்	Shot
술	தூ	Scoop out
곁에	கிட்ட	Near
꼭꼭-	கொக்கு	Pick
꼬챙이	குச்சி	Stick
갈고리	கொக்கி	Hook
살랑살랑	சிற்றலை	Gently
어서	அசை	Move in haste
새- 시-	செ-, சி-	Red
소리	ஒலி	Sound
다른	தவிர	Else
맞춤	மட்டம்	Fitness
하나 가득	கன	full
크나큰	கன	Big, great

위	உ-	Upper, top
բռւշի	பரு, கொப்புளம்	Boil
ստ-	சுத்தம்	pure
அசாரி	அசல்	Original
փտ-	புது, புதிய	New, fresh
բարակիկան	வழங்கு	Wish, want
(փ)գարի	கழி	Rod, pole
օւ	ஊர்	Town, village
օւմլ	ஊற்று	Well
բրակ	புரம்	Town
բիլ	புரி	Town
մարն	மெலிந்த	Lean

#### 4. 두 언어의 문법비교

##### 1) 시제(tense)

한국어와 타밀어는 시제를 표시하는 어미가 유사하다.

	과거(past)	현재(present)	미래(future)
한국어(Korean)	ㅅㅅ/ss, dd, tt/	ㅃ/b, v/, ㄴ/n/	ㄹ/r, l/
타밀어(Tamil)	த்த/dd, tt/, ந்த/nd, nt/	கிற்/kir/	வ/v/, ப/p/

##### (1) 과거시제(past tense)

한국어의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는 발음시에 '/d/나 '/t/'로 난다. 타밀어와 유사하다. 타밀어 과거시제 어미 'ந்த/nd, nt/'에서 'ㄴ/n/'발음이 한국어에도 남아있다. 한국어 동사를 과거관계분사로 만들 때, 이 요소가 나타난다. '보다(see)'라는 동사의 과거관계분사는 '본(/bon/, saw)'이다. 'ㄴ/n/'요소가 과거를 나타내고 있다.

##### (2) 현재시제(present tense), 미래시제(future tense)

한국어와 타밀어의 시제어미에서 미래시제어미와 현재시제 어미가 바뀐 것으로 보면 딱 좋다. 한국어에서는 'ㄹ/r, l/'요소가 현재시제를 나타내는데, 타밀어에서는 현재시제 표시 어미 'కిᄃᆞᆫkir/'에 'ㄹ/r/'요소가 있다. 시제표시어미 'ㅂ/b,v/'의 경우도 현재 시제와 꼭 같다.

## 2) 비교(comparison)

타밀어에서 비교를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 중에 한국어의 비교용법과 비슷한 경우가 있다. 비교격 조사를 '보다'라는 의미의 낱말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எனக்கு இதையை விட அதை பிடிக்கும்.**

(에낙쿠 이다이야이 **비다** 아다이 피딕쿰).

나에겐 이것을 **보다** 저것을 좋아한다.

한국어에서는 명사에 비교격 조사 '보다'를 직접 붙여서 비교를 표현하는데 반해 타밀어에서는 명사의 목적격에 비교격 조사 '비다**விட**'를 붙여서 표현한다.

## 6. 결어

한국과 남인도(타밀문명)는 최소한 2천년 전, 철기문명의 이동시기부터 넓고 깊은 교류를 시작했다. 한국어와 타밀어 사이에 한국 고대어부터 현대어에 이르기까지 유사하거나 동일한 어휘가 매우 많다. 이런 사실이 위와 같은 잠정적 결론을 증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다.

한국과 남인도는 고대 해양실크로드를 통해서 교류했기 때문에 한국어와 타밀어뿐만 아니라 다국적 교류어(한국어-타밀어-중국어-일본어)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앞으로 다국적 교류연구가 요청되는 대목이다.

더불어 불교와 같은 종교적 교류뿐만 아니라 민속학이나 인류학 같은 다양한 학문적 연구도 필요하다.